

போல்காஓ

MAY



2014 MAY

SUN	MON	THE	WED	THU	FRI	SAT
				I 노동절	2	3
4 구제시장 방문	5	6	7	8	9	10 축구경기 관람
II 청년 미팅	12	13	14	15	16 축구경기 관람	17
18	19 세월호 추모 예배	20 독립기념일 체육대회	21	22	23 한국어 수업 시작	24
25 청년들과 바다!	26	27	28	29	30 센터 휴일	31



5월 **활동**소개

05/10 축구경기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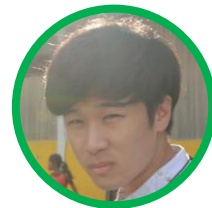
05/16 축구경기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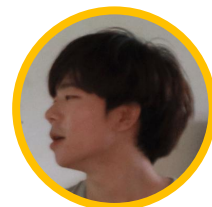
나는 청년들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 아파서 못 다녀왔어. 아쉬웠지만 곧 경기가 또 있어서 좋았어.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축구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더 좋았어.

평소에 나름 친하게 지냈던 청년들이 축구팀에 소속되어 있어서 응원할 때 더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여진이가 화장실을 찾으러 갔다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티모르 결혼 문화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어. 결국 우리 팀이 이겨서 돌아올 때 왠지 나도 뿌듯하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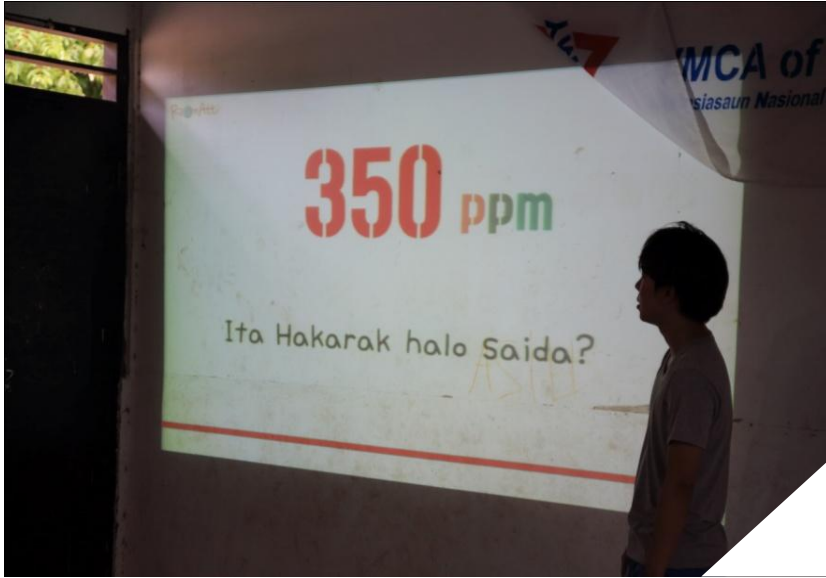


이번 달에는 두 번 ymca 축구 경기를 관람했어. 축구에 별 관심은 없지만 내 친구들과 ymca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라서 재미있었어. 또 경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어서 티모르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

나는 사진기사로 끌려다니는 듯. 앞으로도 그럴 듯. 잘 보기 힘들었던 청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를 보는 것은 재미있잖아? 아쉬운 것이 있다면 ymca 팀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코너에서 볼 돌리기도 했었던 것. 예전에는 페어플레이 상도 받았었다는데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



05/11 청년들과 미팅



아띠들이 테라산타 지역 청년과 함께 해야 할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우리는 이 시간에 350PPM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다. 또한 테라산타의 청년들도 아띠들과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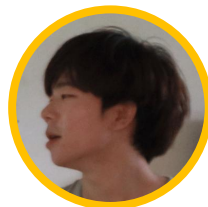
테라산타 청년들과 처음으로 가진 공식적인 모임이었는데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쉬웠어. 하지만 전날 준비한 시간도 나에게 나름 의미있었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티모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지 훗날 날이었으니까. 양간사님께서 우리의 350ppm계획을 보시더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 티모르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외국인 마인드로만 살았다고 꾸중을 들었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반성했어. 그리고 이제는 좀 더 티모르에 관심을 갖고 테라산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같이 회의하면서 한결이랑 다투기도 했지만 잘 풀린것도 좋은 경험이었고.

청년들과 350ppm과 바다가는 것에 대해 모임을 가졌어. 준비과정에서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간사님의 충고와 도움으로 티모르에서 3개월이나 살았지만 아직까지 티모르에 대해 잘 몰랐음을 반성했어. 청년 모임 때는 우리가 홍보한 것에 비해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아 살짝 실망했어. 승창간사님이랑 청년미팅을 같이 했는데 승창간사님이 미팅이 끝난 후 피드백을 해주셔서 우리의 문제점도 알 수 있어서 좋았어.



컬러프린트로 초대장까지 만들어 돌리면서 엄청 열심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테라산타 지역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청년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준 친구들에게는 그만큼 감사한 마음이 컸어. 회의를 하면서 현지인들끼리의 말은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꼈어. 우리랑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느리게 말해주려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떼뚱어 공부할 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열의가 생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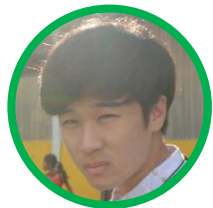
나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기억이야. 발표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청년들도 많이 안와서. 나는 우리들이 정말 청년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에 시작부터 면봉이 왔었지 앞으로 우리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에. 대본은 써갔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350ppm을 할 때는 누가 나 좀 여기서 끌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러다가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끝내버렸지.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발표였어.



05/19 세월호 추모예배



한국에서는 4월 16일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다. 티모르에서 사고소식을 접하고 많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던 중 양동화 간사님의 제안으로 추모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5월 19일, YMCA에서 운영하는 카페 '피스커피'에서 아띠들과 YMCA관계자 분들이 함께 모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분노했겠지만 내가 과연 희생자들을 과연 기리는 시간을 가졌을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그냥 맹목적인 분노만 가득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 이곳에서 화를 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떠나있다는 핑계로 잘 알지도, 알려 하지도 않았었어. 그냥 사고가 났나보다, 한국은 지금 세월호 때문에 전체가 우울하다는 말을 듣고 그런가보다 이려고 있었는데 이 모임을 하면서 일단 나를 좀 반성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와서 세월호에 대해 알아보는데 정말 답답하고 슬프더라고. 정말 잘 알고 정말 잊지 않아야겠어.



나는 지난달 보고서에도 썼듯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생각이 많았어. 여진이랑도 거의 매일 밤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늘 마음으로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간사님께서 먼저 추모예배를 제안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특히 일준간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고 더더욱 생각이 많았거든. 그래서인지 추모예배를 드리며 울기도 했어.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할거야.

세월호가 막 터졌을 때에는 기사로 찾아보고 주희언니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잊혀지고 있던 거야. 그대 간사님께서 제안하셔서 추모예배를 드리게 됐어.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



05/20 독립기념일 체육대회



5월 20일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이다.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테라산타 지역의 아이들과 작은 체육대회를 열었다. 장애물 이어달리기와 보물찾기, 두 종목을 진행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진행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아 종목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온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온 탓에 통솔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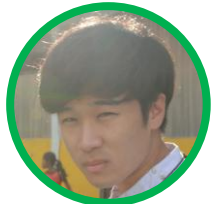
그냥 그랬어.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제대로 생각도, 준비도 안해갔고 어영부영 맞추다보니 제대로 진행이 안됐던 것 같아. 소풍도 제대로 안되서 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했고. 그래서 아쉬워. 또 참여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참여를 못해 아쉽네. 그래도 열을 맞춰 프레트린 기를 달고 달리는 오토바이 행렬은 레알과 바르사때도 그렇고 멋있었어. 열정이 있는 나라라고 할까?

나도 체육대회때 작은 애들을 꺼주지 않아서 아쉬웠어. 혼자서 작은 애들 모아서 교실에서 볼링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다들 중간에 체육대회를 보러 나가더라고. 그래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좋았어. 평소에 오지 않던 큰 애들도 와서 반가웠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준비한 것보다 종목도 조금밖에 못해서 아쉬웠어.



센터에 갔지만 눈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워. 팀원들과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끝날때쯤 눈이 나아서 밖에 나갔는데 센터 감사님이 아이들에게 'bin lita labele moras'라고 외치게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 그래도 평소에 오지 않던 뒤쪽아이들과 큰 아이들이 와서 너무 좋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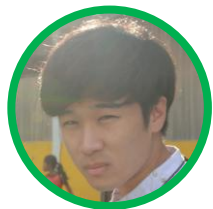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라는 말을 듣고 나의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가 떠올랐어. 참 즐거웠던 기억이었거든. 친구들과 하루 종일 정말 마음껏 놀 수 있었으니까. 이곳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런데 여기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3시 반에 시작을 했고 너무나 일찍 끝났잖아. 또 다채롭지 못했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게 부족했어.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 대신 제로 감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어. 아이들을 동솔하는 모습과 독립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



05/25 청년들과 바다



처음 청년 미팅시간에 바다를 가기로 정하고 그 이후로도 몇 번에 걸쳐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크리스토투레이’로 가기로 했다. 청년들과 크리스토투레이 상까지 등산을 했고, 해변가에서 350PPM에 관하여 설명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같이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했다.



아침에 크리스토토티 상으로 등산을 갔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더라고. 아마도 더위를 먹은 것 같았어. 그리고 내려와서 바다에 갔는데 바다의 바닥이 너무 안 좋은거야. 뽕족한 돌들이 가득하고 뜨거운 해초들도 많고. 걸다가 힘들어서 네발로 기어갔더니 손발에 생채기가 가득해졌어. 몸은 더 안좋아졌지. 생각했던대로 캠페인도 진행되지 않았고... 마음도 안좋고, 몸도 너무 안좋았는데 주희의 간호와 양동화 간사님이 사주신 맛있는 밥이 몸도 낫고 마음도 풀리게 해주었어.

바다에서 보았던 테라산타 청년들의 몸매는 정말 환상적이었어. 그토록 가고 싶던 바다를 드디어 가게 되어서 좋았지. 그리고 청년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었어. 비록 우리가 준비한 걸 거의 못해서 총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바다에 다녀온 후로 동네 청년들과 얘기도 더 많이 하고 확실히 가까워진 걸 느꼈어. 그리고 가기 전날 같이 모여서 늦게까지 피켓을 만드는 일도 피곤하지만 즐거운 일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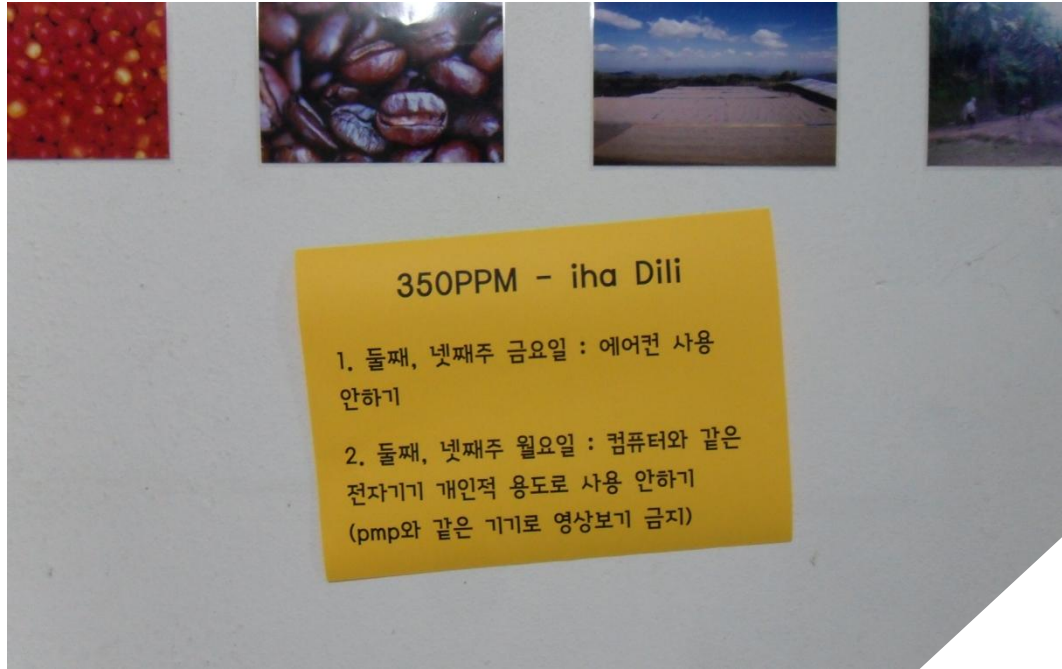


동네 청년들과 처음으로 무엇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었어. 사실 조금 불량스러운 듯한 모습에 가까이 하기가 좀 꺼려졌었는데 그래서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이름도 잘 모르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바다가서 별 것 안했는데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아. 이제는 같이 장난도 치고 나무도 같이 심고.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네. 바다 활동 자체는 청년들과 잘 소통이 안돼서 제대로 못해 아쉬기는 하지만.

청년들과 처음으로 간 소풍은 정말 즐거웠어. 특히 내 친구 레나가 가서 정말 기뻐서. 매일매일 아가랑 집에만 있어서 청년들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비록 준비해간 춤과 게임은 같이 못했지만 청년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 자체가 정말 좋았어. 또 이 소풍 이후로 청년들과 좀 더 친해져서 장난도 치고 수도도 많이 덜게 되어 정말 기뻐.



@ 350PPM?



우리 숙소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350PPM 캠페인을 실천하기 위하여 에어컨 사용 안하기(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컴퓨터 같은 디지털 전자제품 사용 안하기(둘째주 넷째주 월요일)를 한 달에 두 번씩 실천하고 있다. 이런 자발적 불편의 실천을 위해 우리는 치열한 토론과 오랜 고민을 하였고 5월 중순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나를 저격한 듯 한 노트북 사용 제한은 내 노트북이 마테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지만 에어컨 제한은 고통스럽기는 하네. 첫날부터 더워더워 징징. 하루라도 이렇게 고생을 해야 지구시민으로 에어컨이 없이 지내는 팀과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가 350ppm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좀 됐어. 지역사람들과 함께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등등 말이야. 사실 3월에 잠깐 350ppm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자제품 사용 안하기를 말했는데 모두들 크게 반대해서 상심이 좀 컸어. 그런데 양 간사님께서 다시 한번 제안해주시고 모두들 많은 시간 고민하고 치열하게 이야기한 끝에 이렇게 자발적 불편에 동참하게 되었잖아. 350ppm을 실천하게 된 것도 기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얻어낸 결과라는 게 더욱 의미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끝나고 시원한 건기부터 시작하게 돼서 정말 좋아.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생활환경이 좋은 편이야. 물론 그냥 살면 편하고 좋지만 우리는 라온아띠로 온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불편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희언니와 종종 말해왔어. 그래서 회의를 통해 에어컨 제한과 (한결이 오빠를 겨냥한) 컴퓨터 사용제한을 약속했고 생각보다 지킬만 해서 좋았어.

처음엔 자발적 불편이라는 게 잘 이해되지 않았어. 왜 에어컨 없이 살아야 되는 거지? 별로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팀 회의에서 350ppm과 연관시켜 생각하니 이건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게 되니까 조금 기쁜 맘도 있어. 뿌듯하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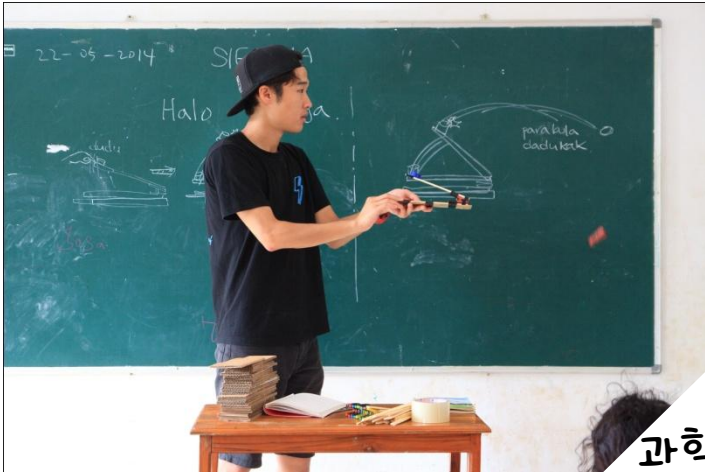
@ 아띠끌라세 (+한국어 수업)



게임



게임



과학



과학



아띠끌라세 (+한국어 수업)



미술



미술



음악



음악

@ 아띠끌라세 (+한국어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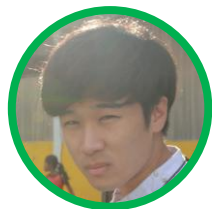
한국어 수업

아띠끌라세가 어느덧 두 달째 접어들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수업은 전과 마찬가지로 미술 음악 과학 게임이며, 5월부터는 새롭게 청년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5월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수업준비를 더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해. 하지만 긴 휴일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느라 조금밖에 안 오는 건 아쉬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할까 고민을 하곤 해. 그래도 아이들이 재밌는 걸 할 때에는 많이 오를거 보니 그냥 이것도 아이들의 자유의지 달렸나 싶기도 하고. 이제 우디스 감사님도 출산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셨으니 아띠글라세를 하는데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번 달에도 과학 수업을 맡고 있어. 과학수업을 하면서 점차 필요한 물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풍선, 골판지, 솜, 에탄올, 두꺼운 털실, 자석 같은 것들.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 현지 감사님들, 동네 사람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물어 물어 재료를 준비하고 솜같은 건 나뭇가지나 나무젓가락을 호일에 싸서 불에 구워 만들었어. 이렇게 필요한 재료들을 얻을 때 뿌듯한 즐거움도 있었어.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봐주고 부족하지만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땐 처음보다는 더 낫게 조금씩 열심히 들어줘서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가 한글수업을 시작했어. 한글수업에서 청년들에게 자음, 모음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쳐다봐주던 그 뽀짝뽀짝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항상 열심히 준비하는 한결이도 다시 보게 됐어.



요즘 음악시간은 에어로빅 시간을 방불케하지. 여태 배운 춤들을 쉬지도 않고 땀을 줄줄 흘리며 추는거야. 한 30분을 하얗게 불태우면 우리들은 deskansa(휴식!)를 뒀는데 애들은 지치지도 않나봐. 솔직히 좀 귀찮아서 몇 곡 안 알려줘서 레퍼토리가 떨어지는 중... 열심히 해야지. 그럼 다음은 젠틀맨이다. 이말 저번 달에도 한 것 같은데...

아띠길라세는 세 달째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아이들이 오전에는 학교 가느라 작은애들밖에 안 오고 오후에는 큰 애들도 많이 와. 바라는 점은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더 왔으면 좋겠지만 나도 어렸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아이들 마음은 이해가 돼. 하지만 우리는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최근에는 게임시간에 투호를 하려고 한결 오빠와 나뭇가지를 주워서 다듬었어. 투호 통은 어떻게 해야 진짜 생태교육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이야



개인

코너



ON
AIR

제프리의 보니따리오



사연 게시판

그녀가 떠나버렸어요.

센터의 아이들에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던,
저 멀리 한국까지 쪽지를 전해주는 순백의 비둘기 같던,
밤마다 함께 울고 웃던,
티모르의 뜨거운 열기를 가녀린 몸으로 버티지 못한 것인지,
바이러스 때문인지...

그녀와 함께 하던 왕좌의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녀가 떠나버렸어요...

그녀의 이름은 LG 그램이에요.

제프리 씨 저는 이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야하죠?

그나저나 제프리씨 PMP도 떠나버렸던데,
티모르 플라자에서 테블릿 싸게 팔더라고요. 반띵 어때요?





토니씨의 그녀들은 다 떠나가는군요(ㅠㅠ)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음엔 부디 오래가는 그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에이핑크의 <NO NO NO>

토니의 사진전

이번 달은 발리를 가니까
간결하게 갑니다.



-드래곤볼 TIMOR-



-노디야 좀 웃어봐-

-컴퓨터가 망가져서 슬픈 토니-





재밌어 보이지만 바다안이 온통 돌 투성이.
외국인들이 노는 곳은 고운 모래 해변이고
티모르인들이 노는 곳은 돌 투성이 바다라...





개인소감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경험이고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풀무질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달을 넘게 살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이곳 생활에 내 정신이 매몰되어갔다. 그렇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느 샌가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다. 공포감이 들었다.**

공포감은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나사 빠진 기계처럼 일은 평소처럼 했지만 **그 안의 열의가 없어진 것 같았다.**

힘들다는 생각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출국 전에 내 자신에게 쓴 편지를 받았다. 초심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쓴 편지에서 다시 한 번 해볼 용기를 얻었다.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에세이를 보기에 근사하게 한 편 썼었지만, 남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인 것 같아 다시 에세이를 썼다.

이제 두 달이 채 안남은 이 시점. **나는 이곳에 왜 왔고,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조금 더 희망을 갖자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자.
그곳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너무 큰 걸 기대하지는 말되, 현실에 매몰되어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지는 말자.
항상 감사하자.
미워하지 말자.
더 좋아하자.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나를 되돌아보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1월에 국내훈련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라온아띠로 동티모르에 와서 지낼 시간이 지낸 시간보다 적게 남았다. 5월을 시작하면서부터 양동화 간사님께 지적을 받기 시작한 점은 우리가 얼마나 집밖으로 잘 나가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티모르에서는 야간 통금이 있어서 그런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센터 활동 외의 외출에 대해 두려워하고 겁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많아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텅굴거리며 지냈다.** 그러다보니 티모르에서 가는 곳이라고는 숙소, 센터가 다였다. 그리고 그런 게으름이 티모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양 간사님께 지적을 받고 낮 외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말부터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외출이었는데 내 발음 때문에 택시아저씨가 엉뚱한 곳에 데려다 줬고, 1시간을 헤매며 여진이와 집에서와는 다른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우연히 간사님들을 만나서 차도 얻어 타고 원래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티모르의 다른 모습을 유쾌하게 즐길 수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주말 동안 **티모르의 곳곳을 다녀보기 위해 많이 돌아다닐 예정이다.**

5월 초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조디 간사님 트럭에 쓰레기를 실기만 하고 버리는 것은 조디 간사님께서 하셨다. 그때 양 간사님께서 우리 쓰레기를 조디 간사님이 도와주시는건데 왜 따라가서 같이 안 버리냐고 하셨다.

그 순간 이곳에서 받는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서 정말 부끄럽고 한심해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센터에서 활동을 하다가 들어간 이웃집에서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면 주는 시원한 물과 피곤하다고 하면 내어주는 마당의 의자, 가게 앞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챙겨주는 아이스크림이 모두 댓가없이 주는 것이다. 그냥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뭔가를 받고만 있었다. 내가 주는 거라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멀리 있어서 못 본다는 이유로 나를 챙겨주고 보살피주는 게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정작 티모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티모르 사람들은 이미 라온아띠였다.**

한국에 가고 싶다. 하지만 센터는 가고 싶다. 5월 들어서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다른 이유보다 한국말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고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내 방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문득 했다. 그래도 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놀다 보면(특히 마르페를 잡기 위해 센터 운동장을 마구 뛰어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져서 다행이긴하다. 그래서 **잠은 우리 집에서 자고 집에서 미끄롤렛을 타고 센터 가서 아이들과 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하지만 현실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2개월 뒤면 저절로 나는 한 가지를 못하게 되겠지. 그래서 꼭 참고 재밌게 지내볼 예정이다.



‘티모르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에서 오는 co2 배출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들은 350ppm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작은 농장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티모르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을 **로컬에서 재배한 것을 먹는다는 것**. 우리들은 책에서, 인터넷에서 본 것만으로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사실 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다**.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도 그리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으니까. 항상 무엇을 준비해가고 이것을 하겠으니 같이하자는 식으로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기도 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한 달이었다.

말을 하고 친해지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배우고 바뀌어나가는 아직까지는 감이 제대로 잡히지 않지만… 라온아띠란 그래야 하는 활동이 아닐까? 이제 홈스테이를 시작하니 한번 녹아 들어보고 싶다.



여섯 가지 참회

내가 생각해야만 하는데도 생각하지 않은 것과
말해야만 하는데도 말하지 않은 것
행해야만 하는데도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생각한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한 것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소서

-젠드 아베스타-

빅니퍼의

다음 달에 만나요 ☺

